

조기천 『백두산』 연구의 선결문제

고 현 철*

차 례

I. 서론	2. 『백두산』 창작과정에서의 김일성 개입 문제
II. 본론	제
1. 『백두산』 텍스트들과 그 의미의 차이 문제	III. 결론

I. 서론

조기천의 『백두산』은,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 문학에서는 하나의 기원과 같은 작품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작품이다. 조기천의 『백두산』은 발표되고 난 직후부터 북한에서는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은 만큼 바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백두산’은 하나의 작품이므로 「」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나, 이 ‘백두산’이 장편 서사시로 단행본으로 간행된 바가 많아 단행본일 경우의 부호인 『』와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다른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품일 경우와 이를 단행본으로 간행했을 경우가 다 같은 ‘백두산’이므로 『백두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엄호석, 「조선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 『문학예술』, 1950.5.
리정구, 「시인 조기천의 창작의 특징과 의의 - 그의 1주기를 제하여 『조기천 연구』의 일부로서-」, 『문학예술』, 1952.7.
리정구, 「시인 조기천의 문학적 활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예술』, 1952.11.
한효, 「조기천의 창작에 있어서의 당성」, 『문학예술』, 1953.7.

그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남한에서는 다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다. 북한 문학과 그 연구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 개방되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의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본론에서 언급하겠지만, 조기천의 『백두산』 텍스트에 한정하더라도 아직 남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각종 『조선문학사』에서 조기천의 『백두산』을 다루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 될 것이다. 여기에 시 장르와 특정 시기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이루어진,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저서, 예를 들어 류만이 쓰고 1988년에 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간행된 『현대조선시문학연구(해방후편)』 같은 것까지 들면 그 분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그 전체를 파악하기란 더 난감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조기천의 『백두산』을 연구할 때의 입장 혹은 관점과 남한에서 연구할 때의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남한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면서 북한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참고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천의 『백두산』에 집중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한의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임현영, 「민중적 영웅주의의 구현 -조기천의 삶과 문학세계」, 『백두산』, 실천문학사, 1989.
김재홍, 「조기천 『백두산』, 민족혼의 상징」,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 시와시학사, 1993.
백지연, 「항일 투쟁의 영웅화와 민중적 연대 -조기천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김경숙의 『북한현대시사』(태학사, 2004)는 조기천의 『백두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해방 1945년부터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전인 1967년까지의 시 장르에 한정하여 683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살펴보고 있으므로, 연구의 성격상 조기천의 『백두산』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서이므로 앞의 연구와 같은 비중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위의 연구들을 검토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이 연구들이 같은 텍스트를 활용하여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헌영과 김재홍은 1989년 남한의 실천문학사에서 간행된 『백두산』을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고, 백지연은 1987년에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된 『백두산』(그림책)을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고, 김경숙은 1955년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간행한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을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텍스트가 서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텍스트라면 어떤 텍스트를 활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의미 있는 차이를 지니고 있는 텍스트라면 그 의미 있는 차이에 대한 검토를 통한 인식을 전제로 한 후 텍스트를 선정해 활용하여야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에 있어서 텍스트를 제대로 활용한 것이 된다.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백두산』의 텍스트들은 어떤 것 사이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고 또 어떤 것 사이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의 본론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북한의 공식적인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인 1946년 말과 1947년 초에 조기천이 『백두산』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백두산』 작품 내용의 배후 주인공인 김일성이 개입하였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 문제 또한 비중 있게 살펴야 『백두산』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사항은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 방법을 촉발시켜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이 연구 방법(나중에 본론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는 북한 정치사와의 상관성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천착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의 선결문제로 삼아 본론을 통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백두산』 텍스트들과 그 의미의 차이 문제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에 있어서 그 연구대상인 『백두산』 텍스트 자체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백두산』은 텍스트에 따라 텍스트 자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떤 『백두산』을 텍스트로 삼아 연구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조기천의 『백두산』은 처음 1947년에 『로동신문』에 연재되다가²⁾ 이를 묶어 1948년에 이 『로동신문』을 내는 로동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된다.³⁾ 이것은 조기천의 1주기를 맞아 1952년에 문예출판사에서 『조기천 선집』 상·하권 가운데 상권의 일부로서 구성되게 된다.⁴⁾ 『조기천 선집』

2)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사사연, 1986, 221쪽. 여기서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은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하루에 20백 여 행, 3백 여 행씩 10여 회에 걸쳐 연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용직, 『이념과 기법 - 조기천론』, 『시와사상』 제28호, 2001.봄, 312쪽. 여기서는 “『백두산』은 탈고와 동시에 당기관지 『로동신문』에 1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가 파악해 본 결과, 현재 국회도서관·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북한자료센터 등 남한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행정·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에 1947년의 『로동신문』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리고 1947년에 연재된 『백두산』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연구결과물도 없다. 따라서, 1947년 『로동신문』에 연재된 『백두산』은 현재 남한에서는 직접 볼 수는 없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3) 이정구, 『시인 조기천의 문학적 활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예술』, 1952.11, 116쪽. 여기서 “장편 서사시 『백두산』(로동신문사 발행 - 1948년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503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필자가 파악해 본 결과, 현재 국회도서관·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북한자료센터 등 남한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행정·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에 1948년 로동신문사에서 발행한 『백두산』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리고 이 『백두산』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연구결과물도 없다. 따라서, 1948년 로동신문사에서 발행한 『백두산』은 현재 남한에서는 직접 볼 수는 없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4) 『문학예술』 1952.7, 140쪽 광고에 따르면, 『조기천 선집』은 상권에 장편서사시 『백두산』과 『생의 노래』를 수록하고, 하권에 『서정시편』과 『서정서사시편』들을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파악해 본 결과, 현재 국회도서관·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북한자료센터 등 남한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행정·공

은 다시 1955년에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간행하게 된다.⁵⁾ 1986년에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조기천시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백두산』이 간행된 바 있으며 1987년에는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그림책’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그림책 『백두산』이 간행된 바 있다.⁶⁾ 1989년에는 남한의 실천문학사에서 단행본

공기관과 각종 단체에 1952년에 간행된 『조기천 선집』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리고 이 『백두산』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연구결과물도 없다. 따라서, 1952년 간행된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은 현재 남한에서는 직접 볼 수 없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 5)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121쪽 이후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인용은 이에 따르고 있고, 김경숙의 같은 책 668쪽의 참고문헌에서도 이를 드러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1952년에 문예총출판사에서 나온 『조기천 선집』과는 다른 텍스트로 일단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숙의 같은 책, 661쪽에서도 조기천의 약력 소개 가운데 1952년 문예총출판사에서 간행한 『조기천 선집』 상·하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두 텍스트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용직, 앞의 논문, 앞의 책, 329쪽에 1955년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간행된 『조기천 선집』의 구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장편서사시 『백두산』, 『생의 노래』(‘산의 노래’로 잘못 인쇄되어 있어 바로 잡음)와 초기의 서정시들, 그리고 서정서사시가 총망라 수록되었다”로 주4)에서 밝힌 『문학예술』1952.7., 140쪽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52년판 『조기천 선집』의 사항과 꼭 같기 때문이다.

필자가 파악해 본 결과, 현재 국회도서관·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북한자료센터 등 남한의 정부기관을 비롯한 행정·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에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은 소장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 『백두산』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연구결과물은 앞에서 언급한 김경숙, 『북한현대시사』의 경우이다.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서울대학교 권영민 교수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양해를 얻어 텍스트로 활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필자도 권영민 교수께 양해를 얻어 이 텍스트의 내용물을 얻게 되어 본고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 귀중한 자료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신 권영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6) 백지연, 「항일 투쟁의 영웅화와 민중적 연대 - 조기천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314쪽. 백지연의 이 논문은 1987년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간행한 그림책 『백두산』을 인용하고 허남기에 의해 일어로 번역되어 1987년 일본 じんが 書房新社에서 간행한 『백두산』과 남한의 실천문학사에서 1989년 간행한 『백두산』을 참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가 파악해 본 결과, 1986년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간행한 『백두산』은 현재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1986년판 『백두산』을 활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남한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6년판 『백두산』은 ‘조기천시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만큼 서사시 ‘백두산’ 외에 ‘서정시편’ 18편과 ‘서정서사시편’ 2

『백두산』이 간행된 바 있다.⁷⁾ 그리고 북한 공산당 창건 50돌을 맞아 1995년 북한의 『조선문학』 5·6월호에 2회, 북한의 『청년문학』 5·6·7월호에 3회 분재 수록되어 있고, 또한 1995년 북한의 『천리마』 4호에 수록되어 있다.⁸⁾ 그리고 2004년에 북한의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제목 ‘백두산’ 앞에 ‘장편서사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단행본 『백두산』이 간행되어 있다.⁹⁾

이 중에서 1947년 『로동신문』 연재 『백두산』과 1948년 『로동신문사』 간행 『백두산』은 텍스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로동신문』에 연재된 것을 『로동신문』을 내는 로동신문사에서 묶어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 그 구성이 완전히 같음을 언급한 바 있는 1952년과 1955년의 『조기천 선집』의 『백두산』도 그전의 텍스트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기

편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를 복사하여 본고에서 활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이와 같이 밝히는 이유는, 다른 연구자들이 조기천의 『백두산』 텍스트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그리고 1987년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간행한 『백두산』은 현재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이를 복사하여 본고에서 활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 7) 조기천, 『백두산』, 실천문학사, 1989.의 ‘해설’로 실려있는 일련영, 「민중적 영웅주의의 구현 - 조기천의 삶과 문학세계」는 당연히 이 『백두산』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김재홍, 「조기천 『백두산』, 민족혼의 상징」,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 시와시학사, 1993.에서도 남한의 실천문학사에서 간행한 이 『백두산』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 8) 『조선문학』, 1995.5., 14쪽에서 “당 창건 50돌”을 맞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추억속에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고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들중에는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과 리수복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김철의 서정시 『어머니』도 있다. 편집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믿음과 배려에 의하여 이 작품들을 다시 편집하게 된다.”고 하여 『백두산』을 비롯한 세 작품의 편집 수록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편집 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아 본고에서 『백두산』 텍스트 비교를 통해서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1995년에 『조선문학』에 분재된 『백두산』은 『조선문학』이 이미 여러 기관에 영인본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이다. 1995년 북한의 『청년문학』에 분재된 『백두산』과 『천리마』 4호에 실려있는 『백두산』은, 필자가 파악해 본 결과,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복사하여 본고에서 활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 9) 필자가 살펴본 결과, 이 『백두산』 텍스트를 활용한 남한의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2004년판 『백두산』은 북한자료센터와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에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이를 복사하여 본고에서 활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천 시에 대한 한 연구 가운데 1948년 『백두산』과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 텍스트 자체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참고가 되는데, 이에 따르면 그 차이는 1948년 『백두산』의 제4장 3절에 있는 “얼은 것이란 소 한 마리 뿐”이 1955년 『조기천 선집』의 『백두산』에서 “얼은 것은 소 두 마리뿐”으로 수정되고 이에 따라 “저 소는 중국 농민의 소다”가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1948년 『백두산』과 1955년 『조기천 선집』의 『백두산』의 차이는 1950년대에 와서 ‘중국과의 유대’라는 의미가 좀더 부각된 것 외에 다른 차이는 없는 것이 된다.¹⁰⁾ 하지만 조기천의 『백두산』을 인용하고 있는 1950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미 그 이전 『백두산』에 “저 소는 중국 농민의 소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이로 보면, 엄호석은 1950년에 논문을 쓰면서 1948년 『백두산』과는 다른 『백두산』 텍스트를 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텍스트의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남한의 실정이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미 1950년 『백두산』 텍스트가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 텍스트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단 간주될 수 있을 뿐이다.

1987년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된 『백두산』은 그림책이라서 이를 연구의 텍스트로 삼는 것이 적절인가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림을 제외하고는 1986년에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된 『백두산』과 완전히 같은 텍스트임을 필자가 확인하여 연구의 텍스트로 삼는 데에 무방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되도록 1986년판 『백두산』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89년 남한의 실천문학사가 간행한 『백두산』은 바로 1986년판과 1987년판 『백두산』 텍스트와 그 내용이 같다. 다만, 북한에서 간행된 1986년판과 1987년판 『백두산』 텍스트의 내용 중에 ‘왜놈’ 또는 ‘왜적’이란 말을 ‘일제’로 수정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에서 간행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관계로 널리 조기천 시 연구의 텍스트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까지의 『백두산』 텍스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연구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0) 김용직, 앞의 논문, 앞의 책, 328-330쪽.

11) 엄호석, 『조선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 『문학예술』, 1950.5, 30쪽.

즉, 그 이전의 『백두산』 텍스트와 비교하면 상당한 의미의 차이를 가진 상당 부분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검토가 없이 조기천 시 연구를 위한 텍스트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1995년 『조선문학』, 『청년문학』에 각각 분재 수록된 텍스트와 『천리마』에 수록된 텍스트는 그 내용이 같다. 다만, 『천리마』에 수록된 텍스트에서 제4장 2절에 “또 북에 있는 자유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빠져 있고 제7장 2절에서 연 구분이 잘못되어 있는 한 곳이 있을 뿐이다. 이 연 구분은 다른 모든 『백두산』 텍스트에서와 달리 『천리마』 수록 텍스트에서만 연 구분되어 있는 것이므로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빠져 있는 한 구절도 『천리마』 수록 텍스트에서 빠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1995년 『조선문학』, 『청년문학』에 각각 분재 수록된 텍스트에서는 이 한 구절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에 북한의 문학예술출판사에서 간행된 텍스트가 1995년 『조선문학』, 『청년문학』에 각각 분재 수록된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5년판과 2004년판 『백두산』 텍스트는 그 이전인 1986년판과 1987년판(남한의 실천문학사의 경우 1989년판)과 비교하여 없던 부분이 첨가가 되거나 보완이 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판본을 1986년 이전인 1955년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1995년판과 2004년판 『백두산』 텍스트가 1986년판과 1987년판 『백두산』 텍스트에서 일부 내용이 첨가되거나 보완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1955년판 『백두산』의 내용 중 일부가 복원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필자가 파악한 바, 현재 남한에서 구해 볼 수 있는 최상연도 판)과 1986년판(내용이 같은 1987년 그림책판과 1989년 남한판 포함)과 1995년 『조선문학』판(그 내용이 같은 2004년판 포함)을 비교하여 텍스트 자체의 의미 있는 차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1955년판에서 삭제되고 수정된 정도가 1986년판보다 1995년판이 더 적고 1986년판이 더 크므로(이렇게 된 이유는 본론의 이 항목 뒷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시대순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우선 1955년판과 1995년판부터 비교 검토하는 것이 판본의 전체를 용이하게 파악하는 것이 된다.¹²⁾

12) 『백두산』 텍스트 내용 중에 몇 군데밖에 없는, 예를 들어 “조심하오! 민소!”와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이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에서 빠진 부분과 수정된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빠진 부분부터 들기로 한다. ‘속표지’에 있는 헌사 “이 시편을 영웅적 해방군 쏘련 군대에게 삼가 올리노라”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머리시’ 가운데 “쏘련 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에서 “쏘련 용사”가 빠져 있다. ‘제4장 2절’ 가운데 있던 “『쏘련 빨찌산 략사』에”와 “쏘련의 빨찌산- / 차빠예브, 쏘쓰, 라소… / 그들은 이렇게 싸웠다!”가 삭제되어 있다. ‘제4장 5절’ 가운데 “쏘련 빨찌산을 우리 잊었는가?”에서 “쏘련”이 빠져 있다. ‘제7장 6절’ 가운데 있던 “신세기의 태양이 북에서 비치노니”가 삭제되어 있다. 그리고 ‘맺음시’(1955년판 『백두산』에서는 ‘에피로그’로 되어 있음) 가운데 “친선의 정성이 어엿한 큰 손길-”에서 “큰 손길-”이 빠져 있다. 다음, 수정된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머리시’ 가운데 있던 “북국의 의로운 전사들이”에서 ‘북국의’가 ‘항일의’로 수정되어 있고, ‘제6장 7절’ 가운데 있던 “애국가 드높이 부르며”에서 ‘애국가’가 ‘혁명가’로 수정되어 있다. 그리고 ‘맺음시’ 가운데 있던 “준열에 올라선 붉은 별 땅크”에서 “붉은 별 땅크”가 “항일 빨찌산”으로 수정되어 있으며 “쏘베트 해방군”이 “소베트 군대”로 수정되어 있다.

이제, 이를 다시 1986년판 『백두산』과 비교하여 빠진 부분과 수정된 부분을 들 차례이다. 우선, 빠진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1955년 『조기천 선집』 속 『백두산』 텍스트 내용 중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백두산』 텍스트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그대로 다 빠져 있다. 그리고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에는 있지만 1986년판 『백두산』에는 빠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4장 2절’ 가운데 “또 북에 있는 자유의 나라 정의의 나라”와 ‘7장 6절’ 가운데 “또 우리뿐이 아니다!/피압박 민족의 구호자/쏘련이 세기의 앞장에 섰고/우주의 새 룬리 세우니”가 빠져 있고, ‘맺음시’ 가운데 “친선의 정성이 어엿한 / 쏘베트의 손길을 본다”가 빠져 있다. 다음, 1986년판에서 수정된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6년판이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백두산』에서 수정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머리시’ 가운데 있던 “북국의 의로운 전사들이”에서 ‘북국의’가 ‘항일

“조심하게! 민네!”와 같은 조사나 어미 등의 극히 사소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문학적인 의미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의'로 수정되어 있고, '제6장 7절' 가운데 있던 "애국가 드높이 부르며"에서 '애 국가'가 '혁명가'로 수정되어 있다. '맺음시' 가운데 있던 "준열에 올라선 붉은 별 땅크"에서 "붉은 별 땅크"가 "항일 빨찌산"으로 수정되어 있다. 다음,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백두산』에서 수정된 부분과는 다르게 1986년판에서 수정된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머리시' 가운데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에 있던 "쏘련 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이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백두산』에서 "쏘련 용사"가 빠져 있는 데 반해 1986년판 『백두산』에서는 "빨찌산 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으로 수정되어 있다. '맺음시' 가운데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에 있던 "소베트 해방군을 맞이했다"가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백두산』에서 "소베트 군대를 맞이했다"로 수정되어 있는 데 반해 1986년판 『백두산』에서는 "만고의 빨찌산을 맞이했다"로 수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로로는 판본의 시대순으로 세로로는 『백두산』의 장절순으로 하여 도표로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판본 장절	1955년판	1986년판 · 1987년판 (남한 1989년판)	1995년판 · 2004년판
속표지	이 시편을 영웅적 해방군 쏘련 군대에게 삼가 올리노라	(삭제)	(삭제)
머리시	북국의 의로운 전사들이	항일의 의로운 전사들이	항일의 의로운 전사들이
머리시	쏘련 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	빨찌산 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
4장2절	『쏘련 빨찌산 략사』에	(삭제)	(삭제)
4장2절	쏘련의 빨찌산-차빠예브, 쏘쓰, 라소.../그들은 이렇게 싸웠다!	(삭제)	(삭제)
4장2절	또 북에 있는 자유의 나라 정의의 나라	(삭제)	또 북에 있는 자유의 나라 정의의 나라
4장5절	쏘련 빨찌산을 우리 잊었는가?	빨찌산임을 우리 잊었는가?	빨찌산임을 우리 잊었는가?
6장7절	애국가 드높이 부르며	혁명가 드높이 부르며	혁명가 드높이 부르며

판본 장절	1955년판	1986년판·1987년판 (남한 1989년판)	1995년판·2004년판
7장6절	또 우리뿐이 아니다!/피 압박민족의 구호자/쏘련 이 세기의 앞장에 섰고/ 우주의 새 룰리 세우니	(삭제)	또 우리뿐이 아니다!/피 압박민족의 구호자/쏘련 이 세기의 앞장에 섰고/ 우주의 새 룰리 세우니
7절6절	신세기의 태양이 북에서 비치노니	(삭제)	(삭제)
맺음시	준열에 올라선 붉은 별 땅크	준열에 올라선 항일 빨찌산	준열에 올라선 항일 빨찌산
맺음시	쏘베트 해방군을 맞이했다	만고의 빨찌산을 맞이 했다	쏘베트 군대를 맞이했다
맺음시	친선의 정성이 어엿한 큰 손길-/쏘베트의 손길 을 본다	(삭제)	친선의 정성이 어엿한/ 쏘베트의 손길을 본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은 북한·소련의 유대나 소련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드러나 있는 텍스트이다. 나아가 이 텍스트는 속표지의 헌사를 통해 이 『백두산』 시편을 쏘련 군대에 바치고 있어, 공식적인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 소련이 정권 수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인 1946년 말 1947년 초에 창작이 되었던 『백두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백두산』은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의 내용에서 ‘북한·소련(러시아)의 유대나 소련(러시아)의 영향력’의 흔적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백두산』에서 수정된 부분은 모두 ‘소련’을 ‘항일 빨찌산’으로 수정한 부분이므로, 이 1995년판 『백두산』에서는 항일 빨찌산의 역할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결국,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백두산』은 ‘북한·소련(러시아)의 유대와 소련(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항일 빨찌산의 역할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1995년에는 이미 북한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진행한 지 오래된 시점이므로 『백두산』을 분재 수록하면서 북한·소련(러시아)의 유대나 소련(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북한 건국의 주역인 항일 빨찌산을 최대한 부각시

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를 분제 수록하면서 ‘편집부주’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는 이미 이런 사항이 무의식을 지배할 정도로 기정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955년판과 1995년판 그리고 1986년판 『백두산』 텍스트를 서로 비교해 보면, 1986년판에서는 그 내용에서 ‘북한·소련의 유대와 소련의 영향력’은 아예 읽을 수 없고 항일 빨찌산의 역할만 드러나 있는 텍스트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1995년 『조선문학』에 수록판 『백두산』보다 시기상으로 이른 1986년판 『백두산』에서 삭제된 부분과 수정된 부분이 더 많이 있어, 1995년 『조선문학』 수록판 텍스트보다 한 단계 나아가 ‘북한·소련의 유대와 소련의 영향력’은 아예 읽을 수 없고 항일 빨찌산의 역할만 드러나 있는 텍스트가 되는 점에 있다. 『백두산』 텍스트의 이런 변모는 북한·소련(러시아)의 정치관계 변화라는 배경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론의 이 항목 뒷 부분에서 이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문제는 이와 같이 『백두산』의 내용에서 ‘북한·소련의 유대와 소련의 영향력’은 아예 읽을 수 없고 항일 빨찌산의 역할만 드러나 있는 텍스트가 되는 1986년판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의미 있는 차이를 인식·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텍스트(1986년판과 같은 1987년 그림책판과 1989년 남한의 실천문학사판 포함)가 조기천의 『백두산』 시 연구의 텍스트로 활용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 요컨대, 조기천 『백두산』의 텍스트들이 의미 있는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가 그 차이에 대한 검토와 인식이 없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백두산』은 그 구상에 있어서 김 일성 항일 무장 유격 투쟁의 역사적 의의, 특히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의 연계 밑에 조선 혁명의 정당한 로선을 개척한 이 투쟁의 의의에 침투함으로써 김 대장과 그 전우들의 성격에 거대한 역사적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점, 『소련 빨찌산 력사』에서 차빠예브, 라소 쏘스를 배우면서 고국의 해방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는 김 대장, 그의 전우 철호의 투사적 면모, 눈물겨웁도록 사랑스러운 애국 소년 영남, 그리고 총명하고 순박한 꽃분이의 조선 처녀다운 성격, 이 모든 성격들이 예술적으로 진실하며 전형적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광범한 독자층을 파악함에 충

분하다. 특히 『백두산』은 조선 인민의 장래 운명과 연결되고 민족 해방 투쟁의 역사적 위업을 구현한 거대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김 대장을 묘사하는 극히 어려운 예술적 과제의 해결에 적지 않은 기여로 되었다.¹³⁾

위에 인용한 자료는 1950년대 『조선문학』에 실려 있는 자료로서, 『조기천 선집』까지의 『백두산』을 텍스트로 하여 엄호석이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하여 비평하고 있는 글에 해당한다. 문제는 단적으로 말하여 위의 인용 가운데에서 뒷 부분인 “그의 전우 철호의 투사적 면모”부터는 『백두산』의 다른 텍스트에서도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앞 부분인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의 연계 밑에 조선 혁명의 정당한 로선을 개척한 이 투쟁의 의의에 침투함으로써 김 대장과 그 전우들의 성격에 거대한 역사적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점, 『소련 빨찌산 역사』에서 차빠예브, 라소 쏘스를 배우면서”는 1955년 『조기천 선집』까지의 『백두산』 텍스트에 의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직 『조기천 선집』까지의 『백두산』 텍스트에만 있고 그 이후의 텍스트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1986년판 텍스트에서는 『백두산』의 내용에서 “북한·소련의 유대와 소련의 영향력”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의 연계 밑에 조선 혁명의 정당한 로선을 개척한”이라든가 “『소련 빨찌산 역사』에서 차빠예브, 라소 쏘스를 배우면서”와 같은 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된다.

1986년판 『백두산』을 텍스트로 한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애초부터 이러한 텍스트의 내용적인 제한 속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는 연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마땅히 기본적으로는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까지의 텍스트를 활용한 연구가 되어야 『백두산』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빠뜨리지 않고 그 의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 의미 있는 차이를 지닌 다른 『백두산』 텍스트들은 그 차이를 지닌 텍스트가 나오게 된 그 시기의 정치관계·사회상황과 연관한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1986년에 북한의 문예출판사(1987년 그림판까지 포함하여)에서 간행된 『백두산』의 내용에서 ‘북한·소련의 유대와 소련의 영향력’을 전혀 찾아 볼 수 없

13) 엄호석, 『인민 군대와 우리 문학』, 『조선문학』, 1958.2, 104쪽.

을 정도로 그 이전의 『백두산』 텍스트(1955년판)에서 상당한 부분이 삭제되고 수정되었다가 1995년 이후에는 1955년판의 내용 중 일부가 복원이 되어 ‘북한·소련(러시아)의 유대와 소련(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북한과 소련(러시아)의 정치적인 관계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982년 이후에 있는 중국과 북한간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에 따라 북한이 중국과 밀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북한과 소련은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기본 기조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일정한 기류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상응하여 조기천의 『백두산』에서도 ‘북한·소련의 유대와 소련의 영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전의 『백두산』 텍스트에서 그 내용이 삭제되고 수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 소련의 유대가 다시 형성되지만 그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되기 이전만큼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된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소연방의 해체와 러시아의 등장으로 북한과 소련(러시아)의 관계는 냉각기를 갖게 되지만, 1994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냉각기를 벗어나 어느 정도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게 된다.¹⁵⁾ 1995년판 이후 『백두산』 텍스트에서 ‘북한·소련(러시아)의 유대와 소련(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소련(러시아)의 정치관계 변화의 상황에 상응하는 사항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기천의 『백두산』을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치사와 연관하여 살펴야 하는 점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치관계의 변화에 따른 판본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백두산』의 내용과 연관된 연구가 우선적으로 마땅히 북한 정치사와의 상관성으로 살펴봐야 하는 연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여기에서 제기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의 경우도 그 작품의 텍스트들이 간행된 시기의 정치관계 변화에 따라 텍스트 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문제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14) 유석렬, 『북한정책론』, 법문사, 1988, 172쪽 참고. 1980년대 중반 김일성이 소련을 23년만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그 이후에는 소련과의 유대관계를 다시 갖게 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소련간에 소원한 기류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15)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나남출판, 1997, 101-102쪽 참고.

2. 『백두산』 창작과정에서의 김일성 개입 문제

조기천의 『백두산』은 물론 조기천이 창작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 창작과정에서 김일성이 개입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백두산』 내용의 배후 주인공인 김일성이 작품 창작과정에서 배후에 개입되어 있다는 말은 『백두산』 내용의 방향을 김일성의 뜻이나 의지를 좇아 구성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문학에서 공식 화자로서 김일성이라는 주체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제기는 약화될 수 있는 사항일 수가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북한 정권 수립 이전, 더구나 아직 문학에서 공식적인 화자로서 김일성 주체가 확립되기는 더 이전인 해방기 1946년 말 1947년 초에 『백두산』의 창작과정에서 김일성이 개입한 점은 문제성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기천의 『백두산』 창작과정에서 김일성이 개입했다는 점은 조기천의 『백두산』이 오히려 바로 김일성이 지닌 이러한 상징적인 주체를 확립해 가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남한의 연구에서 이 점은 검토되지 않았는데, 초기 북한 문학의 형성 과정을 다루면서 『백두산』의 창작과정에서 김일성이 개입했다는 자료를 드러내어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 있어 주목된다.

시인은 1946년 11월 말에 작품의 초고를 완성하였다. …(중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1월 …(중략)… 장편 서사시를 보아주시었다. …(중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사시에서 보천보 전투를 기본 사건으로 묘사한 것은 좋은 시도라고 하시면서 보천보 전투를 형상한 부분을 따로 하나의 장으로 설정하되 바로 그것이 서사시의 전반적 흐름에서 절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중략)… 시 「백두산」을 힐뜯으려 하거나 이 시인을 비방 중상하는 것도 다 이런 그릇된 경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낡은 일제 사상 잔재로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오늘 시급히 극복 청산되어야 합니다.¹⁶⁾

위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김재용의 논문 「초기 북한 문학의 형성 과정과

16) 허정숙, 『민주 건국의 나날에』,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451-452쪽. 여기서는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김재용, 「초기 북한 문학의 형성 과정과 냉전 체제」,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학지성사, 1994, 105-106쪽에서 재인용함.

냉전 체제」는 북한의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 이후 제기된 혁명적 낭만주의로서의 고상한 리얼리즘을 시도한 작품의 예로 『백두산』을 들면서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인용 가운데 있는 “시 『백두산』을 헐뜯으려 하거나 이 시인을 비방 중상하는 것”라는 구절은 『백두산』에 대한 안함광의 비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안함광의 비판은 사실 『백두산』을 “극력 찬양한 끝에 몇 가지 불만과 단점을” “첨부”한 것으로, 그 내용은 “시적인 매력이 없는 뻣뻣한 리듬과 내용을 설명하는 억지 특히 산문과 다름없는 시행, 회화의 시적 연소 등의 부족”, “김일성의 빨치산 생활을 영웅화한” 한 점이다. 그리고 “조기천과 안함광의 싸움”에 “김창만”이 끼어들어 조기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안함광의 지위는 여지없이 추락”하게 된다.¹⁷⁾ 김창만은 당시 북조선 노동당 선전부장으로 조기천의 『백두산』을 두고, 김일성을 “세계 역사의 파동 안에서 약소민족의 투쟁이 갖는 의미를 드높인 민족운동의 찬란한 전형으로 나타내 데 있다”라는 고평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¹⁸⁾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김창만이 당의 선전부장인 것도 그렇지만 그의 『백두산』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에 인용한 부분을 보면 조기천과 안함광의 싸움에서의 김창만의 개입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김일성이 『백두산』 창작과정에 개입하여 “보천보 전투를 기본 사건으로 묘사한 것은 좋은 시도라고 하시면서 보천보 전투를 형상한 부분을 따로 하나의 장으로 설정하되 바로 그것이 서사시의 전반적 흐름에서 절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과 『백두산』의 평가에 개입하여 “『백두산』을 헐뜯으려 하거나 이 시인을 비방 중상하는 것도 다 이런 그릇된 경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낡은 일제 사상 잔재로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오늘 시급히 극복 청산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17) 『백두산』을 비판한 안함광의 글 자체는 현재 남한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주된 내용은 현수, 『적지 6년하의 북한 문단』, 국민사상지도원, 1952, 52-57쪽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김재용, 앞의 논문, 앞의 책, 104쪽에서 재인용함.

18) 김창만, 『북조선 문학의 새로운 수확, 조기천 작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평함』, 『모든 것은 조국 건설에』, 로동당출판사, 1947, 196쪽. 여기서는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29쪽 재인용.

이를 보면, 김일성은 조기천이 쓴 『백두산』의 초고를 보고 보천보 전투의 형상화를 한 장으로 설정하고 이 부분이 전체의 절정이 되도록 하는 등 『백두산』 창작과정에 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백두산』의 제6장은 H시 야습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절정이 되고 있다. 여기서 H시 야습전투는 실제 보천보 전투를 형상화한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조기천이 얼마나 김일성의 뜻을 따랐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는 앞서 인용한 허정숙의 저서보다 시기상으로 앞선 자료에 해당한다.

일제야수들에게 무참히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을 안은 그는 혁명적인 작품을 쓰지 않고서는 건달수가 없었다. …(중략)… 그는 이 서사시를 기어코 쓰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 귀중한 이야기들을 들었으며 어느 날 한 투사로부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귀중한 사진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존귀하신 영상을 자기가 집필하는 책상우에 정중히 모시고 서사시 『백두산』의 초고를 썼던 것이다. …(중략)… 한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고 가르치심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요새는 자나깨나 그 생각이라고 했다.¹⁹⁾

위의 인용을 보면, 조기천은 김일성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을 안고 김일성의 사진을 책상 위에 모셔놓고 『백두산』의 초고를 썼으며 초고를 쓴 후에 김일성을 만나서 그 뜻에 따라 『백두산』을 고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부분의 뒷 부분은, 앞에 인용한 바 있듯이, 조기천이 김일성을 만나 『백두산』의 내용을 고쳤으며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이로써 조기천의 『백두산』 창작과정에서 김일성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은, 앞에 인용한 바 있듯이, 『백두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백두산』에 대한 안함광의 비판이 앞에서 보았듯이 문학적인 측면인 데에 반해, 이 비판에 대한 김일성의 반응은 정치적인 측면이란 점이다. 즉, 김일성은 『백두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를 정치적인 전략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김일성은 조기천의 『백두산』

19) 리원우,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창작되던 때의 몇가지 이야기」, 『조선문학』, 1978.9, 40-41쪽.

을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의 일환이라는 정치적인 역정과 전략의 일부로 활용을 하고, 이 『백두산』에 대한 안함광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제 사상 잔재”라고 썰기를 박고 있는 것이다. 안함광의 비판은 정치적인 측면이 아닌 문학적인 측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일제 잔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제 잔재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백두산』이 그 배후 주인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 내용이 항일무장투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김일성은 이를 정치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데까지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공식적인 정권 수립이 되기 전인 해방기 1946년 말 1947년 초에 김일성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세력을 건국의 주역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을 조기천의 『백두산』을 통해서도 널리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정치사와의 상관성으로 조기천의 『백두산』을 살펴볼 필요성이 여기서도 대두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펴볼 때의 『백두산』 텍스트는, 앞의 2-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까지의 텍스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까지의 텍스트와 그 이후에 삭제되고 수정된 텍스트와의 의미 있는 차이도,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따지고 보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정치적인 의미의 차이인 것이다.

Ⅲ. 결론

이상 본론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천의 『백두산』 텍스트들은 그 텍스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지니고 있는 텍스트들이다. 따라서 의미의 차이를 지닌 텍스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가 올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까지의 텍스트를 활용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의미 있는 차이를 지닌 다른 『백두산』 텍스트들은 간행된 그 시기의 정치관계와 연관한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의 경우도 그 작품의 텍스트들이 간행된 시기의 정치관계에 따라 텍스트 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천의 『백두산』 창작과정에 북한의 공식적인 정권 수립이 되기 전인 해방기 1946년 말 1947년 초 사이 김일성이 개입하여 김일성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세력을 건국의 주역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조기천의 『백두산』을 널리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백두산』 연구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1955년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까지의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치사와의 상관성이라는 연구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부각된다. 이것은 본고에서 파생된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²⁰⁾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 살펴 본 바 있는, 조기천 『백두산』 텍스트들과 그 의미의 차이 문제는 남한에서는 현재 자료를 구할 수 없는 1955년 이전의 『백두산』 텍스트까지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조기천, 백두산, 텍스트, 의미의 차이, 창작과정, 김일성, 연구방법

20) 필자는 현재 1955년에 간행된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 텍스트를 활용하여 정치사와의 상관성이라는 연구방법으로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 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참고문헌

자료

- 조기천, 『조기천 선집』 속의 『백두산』, (북한)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조기천, 『백두산』(조기천시집), (북한)문예출판사, 1986
조기천, 『백두산』(그림책), (북한)문예출판사, 1987
조기천, 『백두산』, (남한)실천문학사, 1989
조기천, 『백두산』, (북한)『조선문학』, 1995.5.-6.
조기천, 『백두산』, (북한)『청년문학』, 1995.5.-7.
조기천, 『백두산』, (북한)『천리마』, 1995. 4호
조기천, 『백두산』, (북한)문학예술출판사, 2004

논저

-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김용직, 「이념과 기법 - 조기천론」, 『시와사상』, 2001.봄.
김재용, 「초기 북한 문학의 형성 과정과 냉전 체제」,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김재홍, 「조기천 『백두산』, 민족혼의 상징」,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 시와시
학사, 1993.
김재만, 「북조선 문학의 새로운 수확, 조기천 작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평함」,
『모든 것은 조국 건설에』, 로동당출판사, 1947.
류 만, 『현대조선시문학연구(해방후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리원우,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창작되던 때의 몇가지 이야기」, 『조선문학』,
1978.9.
리정구, 「시인 조기천의 창작의 특징과 의의 - 그의 1주기를 제하여 『조기천
연구』의 일부로서-」, 『문학예술』, 1952.7.
리정구, 「시인 조기천의 문학적 활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예술』, 1952.11.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나남출판, 1997

- 백지연, 『항일 투쟁의 영웅화와 민중적 연대 -조기천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 엄호석, 『조선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 『문학예술』, 1950.5.
- 엄호석, 『인민 군대와 우리 문학』, 『조선문학』, 1958.2.
- 유석렬, 『북한정책론』, 법문사, 1988
-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사사연, 1986.
- 임현영, 『민중적 영웅주의의 구현 -조기천의 삶과 문학세계』, 『백두산』, 실천문
학사, 1989.
- 한 효, 『조기천의 창작에 있어서의 당성』, 『문학예술』, 1953.7.
- 허정숙, 『민주 건국의 나날에』,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 현 수, 『적치 6년하의 북한 문단』, 국민사상지도원, 1952.

<Abstract>

Several Previous Problems of the Study on Jo Gi-Chun's *Baekdusan*

Ko, Hyun-Chul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several previous problems of the study on Jo Gi-Chun's *Baekdusan*. The results of this essa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is essay investigates differences between several *Baekdusan* Texts, that is, 1955 Text, 1986 Text(1987 Text, 1989 Text) and 1995 Text(2004 Text). And, it examines we should practical use 1955 Text in order to study Jo Gi-Chun's *Baekdusan*.

Second, it investigates the fact that Kim Il-Sung interven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Jo Gi-Chun's *Baekdusan*, holding political intention in his bosom.

Third, it investigates that several perspectives — external, internal, and internal-critical — of the study o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it investigates internal-critical perspective is most suitable for the study on Jo Gi-Chun's *Baekdusan* among three perspectives.

In conclusion, it is claimed that we should read *Baekdusan*(before-1955 Text) by focusing on the 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 in terms of the internal-critical perspective for the study on Jo Gi-Chun's *Baekdusan*.

Key Words : Jo Gi-Chun, *Baekdusan*, text, difference of meaning, process of creation, methodology